

수행엔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원력' 있어야

문수사 회주 혜정 스님

절기상으로는 '찬 기운에 모기의 입이 뻐뻐어진다'는 처서(處暑)이건만 한 낮의 태양은 맹렬했다. 매미소리 또한 우렁차서 쉬이 가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처서가 되면 풀들은 성장을 멈추고 다시 대지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길쭉한 풀들은 아직 활기방방하건만, 안으로는 그 푸른 생명력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우주의 기운을 알아내는 그들의 능력이 신기하기만 하다.

삼각산 문수사로 오르는 길은 가팔랐다. 구기탕방 지원센터에서 문수사까지 한 시간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산행이 서툴러서인지 두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와 맑은 식혀주는 솔바람에 의지해 느릿느릿 산길을 걸었다. 한참을 올라가자 예불소리가 들렸다. 어찌나 반갑던지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쪽으로 보았더니 절벽에까지 걸터앉아 있는 대웅전이 눈에 들어왔다. 고려 때의 탄연(탄然) 국사는 하릴이면 저렇게 험난한 곳에 절터를 잡았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문수사에 주석하면서 남긴 시 한수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 스님은 "뭣 하러 불품없는 이 노인네를 만나러 기까지 왔느냐"고 타박을 놓았다. 혜정 스님은 곰 법문이 있다면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법당으로 들어가 기실 채비를 하셨다. 혜정 스님은 20년 넘게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객들을 상대로 법문을 해주고 있다. 스님의 법문으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문에 들어선다면, 한 사람이라도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은사하신 청담 스님은 법당에 한 사람이 앉았어도 법문을 하실 정도였어요. 법문을 시작하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스님 시간이 없어요'라고 쪽지를 보내면 '죽은 사람에게도 몇 시간씩 열불해주고 법문해 주는데, 산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면서 되레 우리들을 혼내주고 그랬어요."

스무 평이 조금 넘는 법당에는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스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기세간은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재앙이 없으면 테러를 비롯해서 서로가 투쟁을 해 살상을 일삼는 등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사상으



보면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님 법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분별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소동파 이야기를 세세하게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중국에 '소동파'라는 유명한 문장가가 있는데, 시와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 굉장히 오만했다. 하루는 육천사에 승호 선사 찾아갔더니 스님이 소동파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오만한 소동파는 스님을 깔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칭(卿)가요"라고 답을 했다.

"칭가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는 선지에 밝다는 종사들을 찾아보고 그 분들의 기량을 알아보는 칭가라 말이에요."

칭(卿)이란 한자로 저울이란 뜻인데 소동파는 '자신이 선지식들의 법력을 알아보는 저울'이라고 소개를 했다. 승호 선사는 세상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소동파를 혼내주고 싶었다. 승호 선사는 갑자기 "으악"하고 무성하게 일성대갈(一聲大喝)하였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되겠소?"하고 물었다.

문장에는 능할지 몰라도 도대체 "으악" 소리는 몇 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스님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육천사를 빠져나온 소동파는 기가 한 풀 꺾였다. 그 후 소동파는 불교의 본지는 학문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사들을 찾아보았다. 어느 날 상종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청했다. 그러자 스님은 "그대는 왜 무정(無情)설법을 듣지 못하고 유정(有情)설법만 들어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산이나 나무와 같은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는 말을 소동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정설법'을 화두 삼아 말을 타고 깊은 계곡을 끼고 돌아오다 거대한 폭포를 만났다. 폭포소리에 소동파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환연(豁然)히 대오(大悟)한 것이다.

소동파는 그 자리에서 오도송을 한 수 남겼다.

계성번시장광설(溪聲便是長廣舌)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계(夜來八萬四千偈)
타일어허거사인(他日如何舉似人)
계곡의 물소리 모두가 부처님 설법인데, 산천초목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
하룻밤 사이에 8만4천 법문을 깨달았는데, 다른 날 이 도리를 어떻게 남에게 일러 주겠는가.

"소동파는 깨달고 보니 물소리, 새소리,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부처님 법문 아닌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이 부처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전부 부처라 생각하고 공경하세요. 지금 요란하게 울고 있는 매미소리, 새소리도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다 법문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혜정 스님은 법문을 끝내고 요사채에 딸린 공양간

20년 넘도록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객에 법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 생각하고 공경하세요"

한 칸 방이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만 가지 인연이 모두 적막하네.
길은 돌 틈으로 뚫려 있고
샘은 구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은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구 저 스님 따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

한 칸 방에는 산들바람이 머뭇다 가는가 하면, 구름도 쉬었다 가고, 달빛과 별빛이 숨바꼭질 하듯 숨어들기도 했을 것이다. 이들과 벗하는가 하면 자신과 마주해 고요를 즐겼던 그리고 선정삼매에 빠져들었던 수행자의 진면목이 그대로 그려진다.

혜정 스님이 1985년 대구 동화사 주지를 마치고 문수사를 찾았을 때 문수동굴 앞 작은 법당 한 칸이 전각의 전부였다. 혜정 스님의 원력으로 법당, 문수전, 나한전,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등 여러 채의 당우를 갖추어서 천년 고찰로 거듭났다.
오고가는 등산객들 틈에서 염주를 돌리고 있던 혜

로 남에게 배물면서 살리는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成住壞空) 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찰나 찰나 변해가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면할 길이 없어요. 부처님은 인간에게 생로병사만큼 다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셨어요. 불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해 절대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이상적인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자기가 곧 부처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우주의 자재인(自在人)이 돼 영원한 생명을 실현하는 각자(儼者)가 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깨닫는 방법으로는 참선, 염불, 주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에는 좋고 나쁘다는 우열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끊임없이 정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정진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원력이 필요

합니다. 원력은 '바람'이 되겠지요. 자신의 원력이 반드시 사회로 회향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참선을 해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겁(多劫)으로 지은 업장이 두터워서 마음 공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 장애를 없애는 방편으로 '능엄주'를 하라고 합니다. 꼭 '능엄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력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이 널리 퍼져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천백여 화신을 나누는 보살로, 천수천안(千手千眼)으로 사바세계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관음신앙은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묘법연화경>에 보면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이 있는데, 이때 관(觀)이란 소리와 모양을 듣기도 하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보문(普門)'은 관세음보살에게 물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사람

에게는 이 문은 환하게 열려 있으며, 그 문에 들어가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관음염불을 하다 보니 환희심이 나서 <관세음보살발원문>을 하나 지었어요."

혜정 스님이 지으신 <관세음보살발원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세에 돌아가신 모든 이의 어버이와 무수한 전생터에 원혼 왜 가신 이들

극락정도 왕생하여 대법열 누리으며
천당불찰 태어나서 무량복을 받사이다

거룩하신 관음보살 당신 앞에 발원함은 중생의 모든 고뇌 견지고자 함이오니 이 세상 모든 사람 한량 없는 번뇌 속에 삼목물결 크나큰 죄 다 없애주옵소서!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관세음보살발원문>을 통해 이 세상에 고통 받는 사람이 날로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혜정 스님의 원력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은 "참선을 통해서나 염불을 통해서 깨닫고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5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현공풍수를 아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수지리! 내가 직접 배워 생활에 적용하여 보십시오.

현공풍수는 중국 당나라 양구빈(834~900년)선생이 창안하여 그 동안 천년이 넘도록 사계지간에만 극비로 전해 내려온 독특한 풍수이론으로 최근에 대만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고급 풍수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공풍수이론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공풍수는 1에서 9의 숫자조합만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1학기만 배워도 수십년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보다 주택(건물), 분묘를 더욱 명쾌하게 길흉하복을 감정 할 수 있는 천하 제일의 풍수지리학입니다.

현공풍수를 배우면

- ※아무리 좋은 대명당일지라도 좌향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 8운(2004년~2023년)중예 간, 인, 곤, 신, 술, 진 6개 좌향으로 신축한 주택(건물) 또는 이사한 주택, 묘 (이장 포함)를 쓰면 폐가망신 하게 됩니다.
- ※특히 양택에서는 생극제화법을 이용하여 추길피흉 할 수 있습니다.
- ※현공풍수의 복잡한 이론은 조건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대표적인 풍수학설(포대법과 동서팔택법)이 맞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 대상자

스님, 법사, 포교사,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인테리어, 전원주택, 펜션, 부동산컨설팅, 경매, (한)의사, 군지휘관, 장례업, 문중관계자, 민속학자, 문화콘텐츠, 감정사, 토지개발관계자, 역학인, 기존의 풍수사, 일반인

※ 기본 한자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및 문의전화 ◀

- 문창역학학원 (서울) 010-6316-3604
- 바보철학학원 (경기평택) 018-308-1636
- 광양시평생교육원 (전남광양) 011-626-0270
- 한림대평생교육원 (강원춘천) 016-772-6688
- 군산대평생교육원 (전북군산) 010-7788-1688
- 예송철학교육원 (대구) 010-3097-1698
- 진주동남학원 (경남진주) 055-761-1828
- 부천대평생교육원 (경기부천) 011-308-1830
- 원광대평생교육원 (전북 익산) 011-659-1744
- 대전대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011-308-1830

대한현공풍수지리학회
http://cafe.daum.net/gursrhvndntn